

# '연아의 쇼'

# 시작됐다

컨디션 최고, 연습훈련서 무결점 연기  
세계 피겨선수권 우승 준비 끝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피겨선수권대회 우승을 향한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의 준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함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김연아는 26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 보조 링크에서 진행된 여자싱글 공식훈련에 맞춰 쇼트프로그램 '죽음의 무도'를 연습했다. 관중석에는 김연아의 훈련을 보려고 많은 피겨 팬들이 몰려들었고, 그중에는 세계선수권대회를 다섯 차례나 석권한 미셸 칸(미국)을 비롯해 미국 피겨의 기대주인 미라이 나가수와 캐롤라인 장 등 전·현역

선수들도 자리를 지키면서 김연아의 모습을 지켜봤다. 이날 김연아는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시작으로 연기를 시작, 마지막 콤비네이션 스프링까지 완벽한 '무결점 연기'를 펼쳐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더불어 비상용으로 준비한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도 깨끗하게 성공해 모든 요소에 대한 준비가 절정에 이르렀음을 증명해 보였다. 김연아는 훈련을 끝내고 나서 "어제 하루 쉬어서 컨디션이 좋다"라며 "컨디션에 상관없이 집중해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어 "프로그램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더 남아 있는 만큼 조금씩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이틀 동안 연습하고 하루 쉬어서 마치 여기서 계속 훈련해온 것처럼 편안하다. 이 컨디션을 잘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연아는 특히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두고 많은 팬들이 이번 대회 성적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있다"라며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연평뉴스

## 28일 쇼트프로그램... 아사다 연기보고 52번째 출전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피겨선수권대회 우승을 노리는 '피겨퀸' 김연아(고려대)가 순서 추천시부터 행운이 따라붙었다. 김연아는 28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진행된 쇼트프로그램 연기순서 추천에서 총 54명의 참가선수 가운데 52번을 뽑았다. 이에 따라 김연아는 10조에 편성된 6명의 선수 중에서 4번째로 연기를 펼치게 됐다.

세계랭킹 순서에 따라 진행된 이날 추천식에서 김연아는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와 아사다 마오(일본)에 이어 번호표를 뽑았다. 김연아가 뽑은 번호는 52번. 번호를 확인한 김연아는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마지막 순서를 벗어난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다. 김연아의 '동감내기 라이벌' 아사다(일본)는 50번을 뽑아 김연아보다 앞선 10조

두 번째 연기자로 나서고 지난해 대회 은메달리스트 코스트너(이탈리아)는 51번을 끌라네 김연아 바로 직전에 등장하게 됐다. 또 다른 금메달 경쟁자인 안도 미키와 수구리 후미에(이상 일본)는 각각 44번과 45번을 뽑으면서 9조에 배당돼 김연아와 같은 조에 묶이지 않았고, 김나영(인하대)은 40번을 선택해 8조 첫 번째 순서로 나설 예정이다. 추첨을 마친 김연아는 웃음을 지으며 "만족스럽다. 마지막 번호를 뽑지 않아 다행"이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훈련장으로 이동했다. /연평뉴스

## "이치로 정면승부 임창용이 자랑스럽다"

박찬호, 대표팀 선전 격려  
미국 프로야구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결승전에서 일본의 이치로에게 정면 승부를 걸었다가 결승타를 맞은 마무리 투수 임창용을 칭찬하면서 감동했다. 박찬호는 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야구가 나라를 지킨다'는 글에서 "연장전에서 왜 이치로에게 승부를 걸었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정경당당하게 대결했다는 게 저는 오히려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임창용은 지난 24일 열린 WBC 결승전에서 3-3으로 맞선 연장 10회초 2사 2,3루에서 김민석 감독이 고의사구로 거르라는 사인을 보지 못해 이치로를 상대로 정면 대결을 벌이다 빠아론 2타점 중전안타를 맞아 패했다. 박찬호는 "이치로를 피하다가 다른 선수에게 당할 수도 있었다"면서 "이치로에게 승부를 한 것이 아쉬운 게 아니라 이치로의 약점을 공략하지 못한 게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비록 준우승을 했지만 태극호는 9회 말 마지막 순간에 동점을 만들고 연장전까지 가는 근성과 힘을 보여주면서 국민에게 희망과 긍지를 심어줬다"며 대표팀의 선전을 높이 평가했다. /연평뉴스



26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벌어진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KIA 우익수 채종범이 4회초때 공을 잡다 부상을 입고 괴로워 하고 있다. /연평뉴스

# 프로야구 '승부치기' 승패 나왔다

## 울 시범경기·울스타전 도입...KIA-두산, 2-3 승부 갈라

"승부치기에 승부가 갈렸다."  
2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프로야구 역사상 첫 승부치기가 펼쳐졌다. KIA는 연장 10회 무사 만루에서 나온 차일목의 병살타에 박용이 잡히며 승부치기 끝에 2-3으로 분패했다. 1회말 '차세대 거포' 나지완의 시원한 홈런포가 터지면서 초반 경기 흐름은 KIA가 주도했다. 2사에 타석에 들어선 나지완은 김선우의 초구를 받아 좌측 바깥 펜스를 맞추는 비거리 120m의 큼직한 솔로 홈런을 쏘아올리며 기선을 제압했다. 곧이어 추가 점수가 나왔다. 2회말 중전안

타로 출루한 이종범이 상대 투수 김선우의 폭투 때 2루를 밟은 뒤, 김선빈의 적시타로 홈인하며 2-0이 됐다. 2점차에서 마운드는 아슬아슬한 리드를 지켜냈다. 1회초 1사 2루의 위기를 넘긴 광정철은 2회에도 2사 1루에서 볼넷을 허용하며 흔들렸지만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 지었다. 제구가 불안했던 광정철은 3회 다시 2사에서 몸에 맞는 볼에 이어 연속 볼넷을 내주면서 무사 만루에 몰렸지만, 두산 타자 이성열을 1루수 앞 땅볼로 막으며 팀의 리드를 지켰다. 하지만 타선이 추가 점수를 뽑지 못한 사이 6-7회 실책과 볼넷 난조로 연속 실점을

하면서, 승부는 2-2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9회까지 팽팽한 힘겨루기로 2-2 승부를 가리지 못한 양팀은 이번 시범경기에서 처음 도입된 승부치기에 나섰다. 두산의 선공이 이루어졌다. 민병헌, 오재원을 주자로 세운 두산은 유재웅의 1루수 앞 땅볼로 1사 2,3루를 만들었고, 왓슨의 희생 플라이로 1점을 추가했다. KIA는 발 빠른 박진영과 유휘봉이 주자로 나섰다. 타석에 들어선 최경환이 1-2루간을 가르는 깔끔한 안타로 무사 만루의 기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차일목의 투수 앞 땅볼이 나오면서 홈으로 들어오던 박진영과 타자가 모두 아웃되면서 2사 2,3루가 됐다. 이종범이 고의사구로 걸어나가면서 다시 만루, 하지만 이호신의 1루수 앞 땅볼로 경기는 2-3 두산의 승리로 끝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또 부상병동?

## 최희섭·채종범·광정철 시범경기서 잇단 부상

KIA 타이거즈에 부상 경계령이 떨어졌다. 26일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 경기에서 부상병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KIA 덕아웃이 슬럼했다. 한층 물오른 전력으로 지난 가을 마무리 캠프 때부터 기대를 모았던 외야수 채종범은 무릎 연골 부분과열로 올 시즌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시작은 '빅 초이' 최희섭부터였다. 1회말 4번 타자로 들어선 최희섭이 자신이 친 파울 타구에 오른쪽 정강이를 맞으면서 타석에 주저앉았다. 다행히 X-레이 촬영결과 단순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최희섭은 경기장으로 복귀해 휴식을 취했다. 2-0의 승부가 이어지던 4회초 이번에는 수비를 하던 채종범이 부상병이었다. 1사에서 두산 최승환의 깊숙한 플라이를 처리하던 채종범이 공을 잡은 후 그대로 쓰러졌다.

외야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공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고, 공을 쫓던 채종범이 발이 꼬이면서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한동안 경기는 중단 됐고, 결국 채종범은 들것에 실린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희섭과 달리 채종범의 부상은 심각했다. 왼쪽 무릎 연골 부분과열 진단이 나오면서 채종범은 수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종범은 27일께 서울 백병원에서 재검진을 받고 수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5회 이번에는 마운드에서 탈이 났다. 3회 베이스 캐비에 들어가면서 오른쪽 종아리에 무리가 왔던 광정철이 결국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5회를 채 지키기 못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쌀쌀한 날씨에 분위가 심상치 않자 조범현 감독은 김성훈, 장성호, 나지완, 이현근 등 주전급 선수들을 벤치로 불러들이면서 추가 부상을 경계했다. 지난 시즌 '부상병동'으로 추락하면서 4강 경쟁에서 탈락했던 KIA는 잇단 부상에 가슴 찡찡한 하루를 보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울 프로야구 '무제한 연장전' 폐지

내달 4일 개막... 팀당 133경기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는 지난해 많은 논란이 일었던 무제한 연장 제도도 폐지된다. 또 팀당 126경기에서 7경기가 늘어난 133경기를 치르게 돼 팬들은 야구 보는 즐거움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9시즌 달라지는 점들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시즌 1-4위팀의 홈구장인 문학(SK-화화),잠실(두산-KIA),사직

(롯데-하이로즈),대구(삼성-LG) 구장에서 내달 4일 개막하는 2009 프로야구의 팀당 경기 수는 지난해 126경기에서 133경기로 7경기가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경기 수도 504경기에서 532경기로 28경기가 많아졌다. 정규리그 경기개시 시간은 주중에는 오후 6시30분,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후 5시다. 지난해 처음 실시됐지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무제한 연장전'은 올 시즌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연장전을 12회까지 갖고 승패를 가리지 못하면 무승부 처리하기로 했다. /연평뉴스